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22. 5. 7. ~ 2022. 5. 14.

출장지: 프랑스

출장자: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 2022. 5. 7.(토) ~ 5. 14.(토) (6박 8일)
3. 출 장 자 : 총 2명

소속	직위	성명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심지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이천재

4. 출장 목적

- 2022년 제46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및 도시·지역 지표 작업반 회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전문가 그룹 회의 등에 참가해 지역개발 정책 관련 발의 내용을 지원하고 각국의 지역정책 동향 파악
 - 제46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산하 작업반(도시, 비도시, 지역지표,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는 지역경쟁력 제고, 거버넌스 증진, 정책지표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도시·비도시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간 정책경험 공유를 위한 자리임
 - 회복력 있는 지역·도시 정책, 비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OECD 내 아국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역정책방향 수립 시 활용
- 한국대표단 구성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오공명 과장, 임현아 사무관, 박형빈 주무관, 문성운 자문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지역정책과 김세환 사무관, 원일웅 사무관,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국토정책과 신용화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송현주 서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인혜 전문연구원,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등 12인

II. 출장 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5월7일(토)	인천	파리	(11:25) 인천 출발 (18:30) 파리 도착	
5월8일(일)	숙소		업무 준비 및 회의	
5월9일(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Room CC5)		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09:30-10:00) • Welcome refreshments (10:00-10:45) • Workshop 1: Rebuilding cities for all in the recovery process (11:00-11:45) • Workshop 2: Blue Economy in Cities (13:00-16:00) • Addressing the impact of global shocks on cities and urban policies • Shaping the city of tomorrow: On the road to the 11th World Urban Forum (WUF 11) • Fostering climate resilience in cities • Update on other urban projects • Wrap up (16:30-17:45) • Urban-rural linkages	
5월10일(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Room CC7)		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13:00-16:00) • Opening session • Current state of rural policies,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and update on 13th Rural Conference • Territorial Review of Gotland • Rural Policy Review of Colombia •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Rural Proofing • Other business (16:30-17:45) • Workshop: Remote working and effects for rural development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5월11일(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Room CC5)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09:3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shop 1 - What helps firms grow in regions? (10:45-1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shop 2: Towards a new spatial equilibrium? New evidence on remote working uptake and housing demand (13: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ning session Assessing regional economic recovery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2 Asses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global value chains: Towards better measurement of internationalisation of regions Regions and climate change Closing remarks (16:3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shop 3: Measuring access to services in all areas 	
5월12일(목)	파리	OECD 본부	46th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Day 1) (10:0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shop 1: Integrating migrants and refugees in cities and regions (13: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ning session RDPC Roundtabl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managing challenges of a fragile recovery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future RDPC Strategic priorities: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2023-24 (16:45-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shop 2: Land value capture Compendium 	
5월13일(금)	파리	OECD 본부	46th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Day 2) (09:30-1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shop 3: First exchange of views around the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development of guiding Principles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11:00-11:45) • Workshop 4: Regional industrial transitions to climate neutrality (13:00-15:30) • Shaping the next Regional Outlook • Regional governance reforms in OECD countries and beyond • Remote working and spatial equilibrium • Enhancing climate finance in regions and cities • Updates on urban and rural development work • Conclusion	
	파리		(21:00) 파리 출발	
5월14일(토)		인천	(16:20) 인천 도착	

※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 첨부

III. 수행사항

1. 핵심 요지

- (제31차 도시작업반 본회의) 지난해 제30차 도시작업반 회의 이후 성과 발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시경제와 에너지 비용에 미친 영향과 도시의 대응,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도구 소개 및 논의, 코로나 19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 그 외 관련 프로젝트 공유 등이 논의됨
- (제27차 비도시작업반 본회의) 제13차 농촌발전회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비도시정책 현황, 세계보건기구(WHO) 및 농촌강화프로그램(Rural Proofing) 등에 관한 논의와 도서경제(island economies)에서의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스웨덴 고틀랜드지역 검토보고서 및 비도시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룬 콜롬비아의 검토보고서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짐

- (제42차 지역지표작업반 본회의) 최근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평가, 발간물 「한눈에 보는 2022 지역과 도시」 설명 및 토론, 외국인 직접투자 및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 지역과 기후변화 등이 논의됨
- (제4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본회의) 지난해 제45차 RDPC 회의 요약 및 관련 아젠다 승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의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미래, 지역경제 회복 방안, 도시와 비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 OECD 가입국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 지역과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도시와 비도시작업반 논의사항 공유

2. 관찰 및 평가

- 제48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지역회복, 기후변화 대응, 지역 분균형 해소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춘 도시·비도시정책 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특히, 한국대표단은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작업반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OECD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원국 간 논의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 한국대표단의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오공명 과장,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국토정책과 신용화 사무관 등은 생활 SOC 사업,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중심의 탄소배출 관리 방향,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기후변화 대응 도시 및 비도시정책 등을 소개하며 의견을 제시함

붙임 1. 제46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록

제31차 도시작업반 본회의

1. 회의명: 제31차 도시작업반(WPURB) 본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9일(월), 10:00-17:30(파리 현지시간)
3. 참석자: OECD 도시작업반(WPURB) 각국 대표단 및 사무국 직원
 - ⊙ (OECD 사무국) 도시작업반(WPURB) 직원 10여명
 - ⊙ (각국 대표단) 도시 정책 관련 각국 관계자 및 연구원 60여명(온라인 참석: 60여명)
 - ⊙ (우리측 대표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임현아 사무관, 박형빈 주무관,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4.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 지난해 제30차 도시작업반 회의 이후 성과 발표
 -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시경제와 에너지 비용에 미친 영향과 도시의 대응
 - ⊙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도구 소개 및 논의
코로나 19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 ⊙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 그 외 관련 프로젝트 공유
5. 세부 회의내용
 - 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시와 도시 정책에 미친 영향
 - ⊙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19가 도시 경제와 지역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극복하기 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인구의 재조정과 피난처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 특히, 치솟는 에너지 비용은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따라서 도시는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유통망의 변경으로 인해 도시는 단기적으로 수입 자재에 대

한 의존성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유통망은 원자재의 생산과 소비 패턴에 대해 제고가 필요

- ⊙ 또한 기부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와 도시 기발시설에 대한 대응 필요
- ⊙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비용에 미친 영향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세계 도시와 도시 네트워크가 대응한 방안 소개
- ⇒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한 도시의 재건 필요
- ⇒ OECD 가입국 도시는 피난처 제공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필요

- ⊙ (프랑스) 일찍이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 쇼크와 향후 발생할 쇼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에 도움을 지원하는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도시정책 아젠다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별도로 양적 연구를 진행 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
- ⊙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류제출 등 이민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면제하고 있고, 카라반, 트레일러와 같은 대체 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승인하는 등 부족한 주거수요를 단기적으로 대응 중
- ⊙ (네델란드)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존재
- ⊙ (독일) 기존 커뮤니티가 얼마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여 현재 400,0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거 문제로 독일 내 주요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도시 거주 요구는 증가하여 네델란드와 같은 어려움이 존재. 특히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어려움 또한 존재. 전쟁 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등을 고려해야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
- ⊙ (미국) 미국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개입을 생각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가격 조정

을 위해 천연가스, 오일 등을 공급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조언 등도 진행

- ⊙ (영국) 영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여 난민의 유입 및 정착을 도
움
 - ⊙ (폴란드) 폴란드는 직접적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로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허
용용량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 요청이 증가 중. 난민 중 남성은 우크라이나로 돌
아가고, 여성과 아동은 계속 증가하는 중
- ⇒ (주거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기존 도시의 허용용량을 초과하는 난
민 유입으로 주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어떻게 지불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가 등에 대한 어려움 존재

나. 제11차 세계 도시 포럼 대응: 도시의 내일

- ⊙ (OECD 실행 도구) OECD의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과 ‘지속 가능한
개발 체크리스트’ 각 도구를 소개하고 현재 버전의 도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
안 논의
- ⊙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에 대해 자기평가모델과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조합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자기평가는 평가목표 설정, 진단, 정책 개선점 도출 등의
과정을 제시
-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도시 정책가를 지
원하기 위해 10가지 실행방안을 제안
- ⊙ (독일) 실행도구의 지역화를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실행도구의 도출이 필요, 독일
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독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다. 코로나 19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 ⊙ 코로나 19가 도시의 성장에 미친 영향과 재택근무의 시행, 이로 인한 주거와 회사
의 위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도시가 더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한 필요점 논의
- ⊙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주거와 회사를 선택하는 위치 기준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새로운 도시 시스템에 영향
- ⊙ 재택근무의 확산은 도시로 유입을 줄이고 유출을 증가시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는 교외화가 증가하고 고령층은 도시에서 유출하고 젊은 층은 도심으로 유입하는 현상이 증가했으며 중개 도시(Intermediary City)가 등장하고, 제2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 ◎ (미국) 미국 내 중개 도시의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중개 도시로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어떤 도시는 혜택을 독점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 내 주거 시장은 임대와 매매 간의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
- ◎ (스웨덴) 미국처럼 중개 도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대도시의 성장은 일시정지된 상황이며 스웨덴에서 재택근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확장 및 확대
- ◎ (이스라엘) 원격근무가 주거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으나 도시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며 중소도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
- ◎ (EU) 우선 중개 도시에 대한 정의와 맵핑을 통해 모두가 같은 개념을 공유할 필요를 강조하고, 우리는 도시와 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필요성을 주장
- ◎ (영국) 영국 내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대면 근무를 존중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주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제 통근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며 기능적으로 도심으로 받아들여진 곳들에 대해 사람들이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의 방식이 중요해짐 고용주가 원격근무를 받아들이는게 필요.
- ◎ (일본) 일본은 디지털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함.

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회복탄력성 회복

- ◎ 자연재해와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과 정책 우선순위가 이전과 다르게 진행되며 국가와 도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또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
- ◎ 팬데믹 이후 기변화에 대응,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물의 전략,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IPAC의 전략 파악 등이 필요
- ◎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요소로 도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기

후위기에 대한 이해, 시민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 파악, 도시의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혜택을 추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꼽음

- ◎ (미국) 지역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게 필요.
-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복잡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플랫폼을 오픈해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파악,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기획,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기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역에 특화된 가이드를 제시. 유출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목의 캐노피가 얼마나 도시를 덮고 있는가를 파악

제27차 비도시작업반 본회의

1. 회의명: 제27차 비도시작업반(WPRUR) 본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0일(화), 13:00-17:45(파리 현지시간)
3. 참석자: OECD 비도시작업반(WPRUR) 각국 대표단 및 사무국 직원
 - ◎ (OECD 사무국) 비도시작업반(WPRUR) 직원 10여명
 - ◎ (각국 대표단) 비도시 정책 관련 각국 관계자 및 연구원 136여명(온라인 참석자 포함)
 - ◎ (우리측 대표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지역정책과 김세환 사무관, 농림부 송현주 사무관, 국토연구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농촌경제연구원 권인혜 전문연구원
4.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 제13차 농촌발전회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비도시정책 현황
 - ◎ 세계보건기구(WHO) 및 농촌강화프로그램(Rural Proofing)
 - ◎ 도서경제(island economies)에서의 지역발전 - 스웨덴 고틀랜드지역 검토보고서

◎ 비도시정책 검토보고서 - 콜롬비아

5. 세부 회의내용

가. 제13차 농촌발전회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비도시정책 현황

- ◎ 비도시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시 지역과 비교해 일부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다양하지 못한 경제구조,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공공의료서비스 증대의 어려움, 디지털 격차 등 여러 가지 취약점을 노출하였음
-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은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문제를 보이지 않음. 또한 도시 거주자의 일시적 주거 공간의 역할을 담당
- ◎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도시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음. 예를 들면, 디지털 도구의 사용 증대 및 확산, 도농지역 간 연계성 강화, 구매습관과 소비자 선호도 변화, 일부 지역의 재산업화 및 기업의 다양화, 비도시지역에서의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재조명 등을 포함
- ◎ (프랑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비도시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도시지역의 산업 부흥 정책 등을 시행 중. 약 100만 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여 산업 회복 및 지역 생산품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위해 노력 중.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 식품 배달과 같은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미래의 작은 마을들(Small Towns of Tomorrow)"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
- ◎ (일본)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주요 식량 공급원 중 하나임.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토지 이용과 농업, 에너지 공급 문제, 재생에너지의 활용, 도농연계의 새로운 트렌드 발굴 등의 노력 필요
- ◎ (EU)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도시지역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비도시지역의 생산과 소비 약화, 농촌 커뮤니티 및 농업 분야 붕괴, 비도시지역의 노동력 부족, 식량안보, 재정 지원 및 배분, 청년층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 (이탈리아)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격차’ 문제를 야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 상승, 디지털화,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 통합, 그리고 토지 및 수자원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 중
- ⊙ (이스라엘) 도시지역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 주거단지로 거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하지만 비도시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음. 이를 위해 비도시지역의 농업 및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 중. 난민과 이주민들은 주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비도시지역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은 매우 중요
- ⊙ (폴란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폴란드에는 이미 약 3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난민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과 학교는 매우 부족하고, 특히 난민들은 도시지역에 머무르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들은 주거, 건강, 사회 통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비도시지역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정책을 시행 중
- ⊙ (한국) 코로나19에 따른 비도시지역 대응방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도시지역 현황 및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등 정부의 대응방안 소개
- ⊙ (스웨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비도시지역의 식품 가격 상승 방지 및 연료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일시적 세금 감면 혜택, 차량 소유주에 대한 더욱 높은 부담률 부과, 식량안보 확보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특별 정책 지원 패키지 도입
- ⊙ (아일랜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역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커뮤니티 대응 포럼(Community Response Forum)”을 도입. 특히, 급속한 난민 유입으로 인해 주거, 교육,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며, 비도시지역의 인플레이션과 식량과 연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행 중
- ⊙ (독일) 비도시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유도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 중, 비도시지역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

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농촌강화프로그램(Rural Proofing)

- ⊙ 농촌강화프로그램은 비도시지역의 지원을 위한 선제적(proactive) 조치를 의미. 이

를 위해 정책입안자는 비도시지역과 커뮤니티를 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농촌(rural)”을 고민해야 함. 또한 이는 비도시지역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등의 영향 검토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

- ⊙ 농촌강화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비도시지역 자원 확보, 비도시지역 특화서비스, 비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 비도시지역의 긍정적 기여에 초점, 비도시지역과 관련은 없지만, 자원이 있거나 비도시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 (에스토니아) 새로운 농촌강화프로그램 정책(RP'g policy)
- ⊙ (독일) 지역 관점에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여 동등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 ⊙ (스페인) G100 농촌강화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다. 도서경제(island economies)에서의 지역발전 - 스웨덴 고틀랜드지역 검토보고서

- ⊙ 이 보고서는 도시 지역으로서 스웨덴 고틀랜드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기 위한 권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아래 세 가지 영역의 정책 제언을 하였음
- ⊙ 인프라 투자 및 계획, 에너지 공급, 수자원 관리, 주택 및 디지털 인프라
- ⊙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 및 사업체 지원
- ⊙ 행정 역량을 개선하고 제한된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및 지방재정

라. 비도시정책 검토보고서 - 콜롬비아

- ⊙ 이 보고서는 콜롬비아 비도시지역 개발의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콜롬비아 비도시지역의 웰빙과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음
- ⊙ 교통과 디지털 연결성 향상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교육 및 보건 개선
- ⊙ 인종 및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비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관리 강화 및 토지 소유권 제도 개편

- ⊙ 포용적인 장소 기반 정책 시행 및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한 포괄적 비도시지역 정책 개발 지원

제42차 지역지표작업반 본회의

- 회의명: 제42차 지역지표작업반(WPTI) 본회의
- 개최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1일(수), 13:00-16:00(파리 현지시간)
- 참석자: OECD 지역지표작업반(WPTI) 각국 대표단 및 사무국 직원
 - ⊙ (OECD 사무국) 비도시작업반(WPTI) 직원 10여명
 - ⊙ (각국 대표단) 비도시 정책 관련 각국 관계자 및 연구원 126여명(온라인 참석자 포함)
 - ⊙ (우리측 대표단)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신용화 사무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임현아 사무관, 박형빈 주무관, 국토연구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평가: 최근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발간물 「한눈에 보는 2022 지역과 도시」 설명 및 토론
 -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
 - ⊙ 지역과 기후변화
- 세부 회의내용
 -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평가: 최근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야기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필품, 비료 등의 가격은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밀과 옥수수 가격 또한 2021년 각각 41%, 34% 상승하였음.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를 포함한 작물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음.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에너지와 비료공급은 제재 이후 OECD 시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 OECD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거나, 이들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러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기업들이 대량으로 수출해오던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를 위한 항구나 물류 중심 지역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체 수출시장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상당한 비용지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 러시아는 일부 유럽국가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임. 천연가스는 전기 생산과 제조에 있어 널리 사용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공급업체를 찾고, 에너지를 전환하며 생산 공정을 변화시키는 조합이 필요함.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천연가스가 발전용으로 사용되거나 에너지 집약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가장 큰 난제에 직면할 수 있음. 그러나 석유와 가스 시장은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일부 국가들이 장기계약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공급받지 않는 지역, 부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천연가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이 있는 지역은 천연가스 시세의 상승에 따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석유화학,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분야의 산업을 유지하는 지역은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 가스집약산업을 있는 지역은 여러 유럽 국가에 퍼져있으며, 이 중 가장 취약한 지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북부,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음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양한 금속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금속 수입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OECD 회원국 및 지역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높은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로에 대한 높은 연료 수입 의존도로 인한 혼란은 제조업의 넷제로(net-zero)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화석 연료는 녹색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석탄과 같은 대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 (캐나다) 비즈니스 데이터 랩(Business Data Lab)을 통해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분석 도구를 개발과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 도입 소개

나. 발간물 「한눈에 보는 2022 지역과 도시」 설명 및 토론

- ◎ 이 보고서는 지역 격차 및 지역 회복에 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발간되었으며, 인구, 환경, 경제, 포용성 부문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었음
- ◎ '19~'20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평균 약 5% 감소하였으며, 상위 20% 지역에서는 약 2%, 최하위 지역에서는 약 9%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국가 내 지역 경제 격차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안정적이거나 격차가 약간 줄어들었음. 2021년 말 기준, 지역의 1/3은 팬데믹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 도시와 수도는 원격근무의 채택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 기준 도시 근로자의 약 20%가 재택근무를 택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은 교외 지역보다 상승률이 더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교외 지역보다 평균 45%, 수도권 인근 지역보다 평균 3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최빈개발지역은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은 지난 10년간 빈곤율을 낮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 청년층은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민자들 또한 주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임. OECD 회원국의 이민자 취업률은 평균 약 4.3% 증가했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의 취업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특히, 여성 고용률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음. 한편, OECD 회원국의 수도는 고학력 이민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1990년 이후 생산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량이 감소된 지역은 40%에 불과함. OECD 회원국의 1/3은 전력을 저탄소 공급원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지만, 나머지 50여 개 지역은 여전히 전력생산에 대한 석탄 의존성이 매우 높음.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건물 탄소배출량은 평균 약 12% 감소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정의 난방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지역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엄청난 산업 전환을 겪을 것임. 한편, OECD 회원국의 수도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률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대도시는 폭넓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반면, 도로 탄소배출량은 동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독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독일의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지역 주택 지수(regional price index)의 결여로 인해 정확한 지역 주택의 가격 지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연방 도시건축공간연구소(BBSR)은 지역 주택 지수를 개발하였음
- ◎ (EU) 지역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임. 특히 국가 및 지역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반드시 기준과 절차 등이 동일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한국)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때 서울과 서울 외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소득 수준 및 성장률 등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의 데이터가 부정확해질 수 있음
- ◎ (노르웨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노르웨�포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 (이스라엘) 주택의 부담가능성과 임금 등과 관련된 지수는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국가 수준의 데이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 혹은 도시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가격과 경제적 격차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짐
- ◎ (캐나다) 캐나다에서 청년층의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동일한 현상임. 하지만 청년층 가족들의 교외지역으로 이주 또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 (EU) 인구의 유입과 유출은 생애주기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년층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및 은퇴인구의 교외 이주 등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음

다. 외국인 직접투자 및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

- ◎ 세계 경제 내에서 지역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해 설명. 특히 FDI, GVCs의 혜택과 광범위한 지역의 “국제화”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작업 설명.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국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장소 의존도를 이

해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함. 따라서 아래 두 가지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짐

- ◎ 첫째,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표 개선
- ◎ 둘째, 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역을 통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역통합을 위한 지표 개발

라. 지역과 기후변화

- ◎ (지역 기후 지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사람과 자산의 노출을 평가하여 국가의 기후 관련 위험도 평가 지원을 위해 지표 개발 중. 이를 위해 폭염, 폭우, 가뭄, 산불, 강풍, 하천 범람, 해안 침수 등 총 7가지의 지표를 제안하였음. 이를 통해 비교가능한 국가 및 국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후 관련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 (ECRRA) 유럽 기후 위험 지역 평가 관련 연구로서 기후 변화의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지역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연구에서는 노동, 운송, 공기질, 관광에 대한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EU 지역의 기후 회복력에 대한 투자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솔루션을 보완하였음.
- ◎ (EDGAR)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향상된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로서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가 더욱 빨라졌으며, 산업, 건물,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 전환)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활동 때문임. 그리고 이러한 제조 활동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일부 에너지 및 원자재는 탄소배출이 없는 재원으로 교체해야 하며, 관련 인프라 또한 전환이 요구됨
- ◎ (미국)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력임.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와 규제가 필요함. 미국은 현재와 미래 홍수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음(참고: <https://www.fema.gov/flood-maps>)
- ◎ (이스라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또한 “무더위”에 대한 개념은 국가·지역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 ◎ (이탈리아) 정부의 통계와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지표, 센다이 지표, 기후변화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들을 정부의 지역 통계 데이터와 결합하여 공표중임

- ◎ (한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활동 동향 공유 및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 소개. 지난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중심의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지도 추진 등 동향 공유.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생활서비스 관련 정책동향 공유

제48차 RDPC 본회의(1일차)

1. 회의명: 제4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본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2일(목), 10:00-17:45(파리 현지시간)
3. 참석자: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각국 대표단 및 사무국 직원
 - ◎ (OECD 사무국) 도시작업반(WPURB) 직원 20여명
 - ◎ (각국 대표단) 도시 정책 관련 각국 관계자 및 연구원 80여명(온라인 참석: 70여명)
 - ◎ (우리측 대표단)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오공명 과장, 임현아 사무관, 박형빈 주무관,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4.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 지난해 제45차 RDPC 회의 요약 및 관련 아젠다 승인
 -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의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
 - ◎ 지역경제 회복 방안
5. 세부 회의내용
 - 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OECD와 RDPC의 지원
 -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내 세계2차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피난민이 발

생했으며 유럽 국가는 전체 인구의 1/4이상의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

- ◎ OECD는 세계 경제가 1.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불안정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침
- ◎ 이에 RDPC는 어떻게 OECD와 RDPC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한 영향인 난민 도움, 에너지 확보 등을 할 것인가 논의 필요
- ◎ (EU)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EU와 OECD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OECD와 유럽과의 협력이 중요. 지역의 회복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갖는 재량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
- ◎ (폴란드) 폴란드는 OECD RDPC의 결정을 존중하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인과 OECD 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함. 폴란드는 OECD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실행할 것이며 이미 폴란드는 OECD, 우크라이나와 함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협의 중.
- ◎ (리투아니아)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로 인해 리투아니아는 전례 없는 쇼크를 받은 상태임에도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교육, 고용, 장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준비 중
-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로 국경을 넘은 수많은 난민들을 지원, 의료,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크라이나인을 지원하는 중.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재건할 수 있도록 원자재 등도 지원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시민사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섬. OECD는 전문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가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OECD의 지원이 필요.
- ◎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 인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수용, 아동 지원,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 바이든은 13.5 빌리언 예산을 배정하고 제공,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미국에 망명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포함. 지난 화요일에는 40 빌리언 달러를 다시 배정해서 직업교육, 지역사회 교육 등을 지원,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있으며 모든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OECD 가입국에 미친 영향

- ◎ 5.8백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근 유럽 국가로 유입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중장기 전력이 필요. RDPC는 이주 난민을 돕기 위해 공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됨
- ◎ 비도시 지역은 에너지 빈곤에 더 취약하고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름
- ◎ (영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입장에 있으며 이 위기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득의 감소, 인플레이션 증가 등이 발생. 이리다 보니 정부의 지원에 대한 압박이 큰 상태이고, 아침이나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동 난민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지원으로 푸드뱅크 지원.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빈곤이 증가, 런던도 영향을 받음. 러시아에 의존도가 크지 않더라도 영국은 특히 북부 잉글랜드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일 등의 영향, 세 번째 영향으로는 공급 체인에 영향을 미침, 소비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에 가중
- ◎ (프랑스) 프랑스는 각 지역이 받은 영향이 큼. 데이터를 맵핑해서 보면 프랑스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다른 국가와 유사한 영향을 받음. 가격 방어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파산의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며, 에너지, 음식 재료 등 주요한 자원의 공급이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오일 공급 체인에 대한 새로운 유통망의 확보 혹은 탄소중립의 빠른 전환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프랑스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 사회 보안의 강화 또한 필요. 프랑스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적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 (핀란드) 핀란드의 주요 에너지원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로 전체 에너지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해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현재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스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지난 10년간 가스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중. 핀란드 가스를 EU와 연결하고자 노력 중
- ◎ (라트비아) 가스, 오일의 인플레이션,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지역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다. 2023-2024 예산 논의

- ◎ RDPC의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인 PWB(Programme of Work and Budget)의 2023-24에 대한 논의, RDPC의 예산은 펀딩과 기여금으로 전체 예산의 25%(part1)를 차지하고, 이 자원은 특별주제에 대한 연구로 활용 중
- ◎ 업무의 품질과 영향력 증진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 예정: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간행물, 보고서 요약 등), 2024년 각료급 RDPC 회의 조직을 통해 고위급 참여 촉진, 지방정부 협회와 민간, 금융, 사회적 파트너, 시민 등과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 비회원 국가와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 논의 및 공유, 글로벌 아젠다 공유를 위해 세계적 회의 등에 참석, 지역과 도시의 문제에 대해 다른 OECD 위원회와 협력 등
- ◎ (프랑스)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는 지역 간 비교를 같은 레벨에서 하나의 도구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업 간에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 다차원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각기 다른 레벨에 다른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미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 (도시작업반의장)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도시 정책과 주변 환경과의 맥락이 복잡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요한 순서로 이런 변화를 추적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비도시작업반의장) 비도시 작업이 우선 실행이 필요한 작업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동의하며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질문으로는 우리가 질적 변화에 대한 것을 추적해야하는 것인지와 왜 OECD가 비도시 지역 작업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언급이 필요
- ◎ (캐나다) 정책결정자가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논리적 과정이 중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 (RDPC 의장) 정책도구, 프레임워크, 플랫폼 구축 등에 노력할 것이며 RDPC 간의 소통에 노력할 것.

제48차 RDPC 본회의

1. 회의명: 제4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본회의
2. 개최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3일(목), 09:30-15:30(파리 현지시간)
3. 참석자: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각국 대표단 및 사무국 직원
 - ⊙ (OECD 사무국) 도시작업반(WPURB) 직원 10여명
 - ⊙ (각국 대표단) 도시 정책 관련 각국 관계자 및 연구원 50여명(온라인 참석: 60여명)
 - ⊙ (우리측 대표단)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오공명 과장, 임현아 사무관, 박형빈 주무관,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4.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 도시와 비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논의
 - ⊙ OECD 가입국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 논의
 - ⊙ 지역과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강화 방안
 - ⊙ 도시와 비도시작업반 논의 공유
5. 세부 회의내용
 - 가. 도시와 비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논의
 - ⊙ 2023년 공개 예정인 보고서의 작업 과정을 공유하며 해당 보고서를 위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과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수렴과정을 공유하고 지역 관망을 위한 국가별 프로필을 구축
 - ⊙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미래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내용 공유
 - ⊙ 1장에서는 OECD 가입국 중 지역 내 불균형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지역 내 불균형의 경향, 최근 영향), 2장에서는 OECD 지역이 지향하는 방향 설정(OECD의 미래, 회복가능성 확보), 3장에서는 국가별 지역 내 불균형의 변화와 지역의 프로필 정리

- ⊙ (영국) 보고서의 구조는 굉장히 좋고, 무역이 지역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영국은 무역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역과 성장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용 창출과 같은 효과에 대한 언급이 필요
- ⊙ (미국) 보고서 초안의 아웃라인은 좋고, 최근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을 지역이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는 필요. 기후변화 또한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등이 다뤄지길 바람
- ⊙ (EU)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생각하면 기후 전환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변화의 속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경우 2050을 고려

나. OECD 가입국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 논의

- ⊙ “OECD 가입국과 그 외 국가의 지역 거버넌스 개편(Regional Governance Reforms in OECD Countries and Beyond)” 보고서의 초안을 공유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개편을 제도적, 지역적, 공공 관리적 관점에서 국가와 연방제 국가 관점에서 검토
- ⊙ 보고서의 목적은 지역 정부의 역할 증대와 개편,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별 영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정부의 경향과 지역 정부의 의사결정 요인, 국가 내 주요 지역 정부 간 비교, 지역 정부의 역할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 (지역의 정의) 지리적 특성, 경제적 기능, 통계 단위 지역, 계획 단위 지역 등 지역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지역’은 국가의 중앙정부 아래 단계의 정부 주체를 의미
- ⊙ 지역 정부를 개편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는 문화, 역사적 특징, 다층적 거버넌스의 효율성 강화, 경쟁력과 웰빙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정부의 유형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동태적 과정을 가진다는 점, 각 유형은 고유한 특징과 장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존재
- ⊙ 네 가지 유형의 지역정부 유형: 계획 혹은 통계 단위 지역, 협력 지역, 탈중심화 지역정부, 입법권한을 갖는 지역 정부로 구분 가능

다. 원격근무와 공간적 균형

- ⊙ 팬데믹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원격근무가 급속히 확산되었고(코로나 19 이전과 비

교하면 2배 이상 증가), 이로 인해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하여 모든 규모의 도시, 특히 중간도시와 같은 도시에 영향을 미침

- ◎ 코로나 19 이후 도시의 확산과 인구 이동을 고려한 6개의 시나리오를 도출: 도시에 유입(기존), 비도시 지역으로 인구이동, 도시중심의 재생 및 성장, 도넛효과, 도넛효과의 확장, 중간도시의 등장 및 성장
- ◎ 도시로 유입이 감소하고 유출은 증가(런던, 도쿄, 파리, 토론토, 몬트리올), 다양한 지역화로 한 곳의 주거지가 아닌 다양한 주거지를 가지는 현상 발생하는 등 선택적 재편 현상 목격
- ◎ 파일럿 연구로서 미국 우편번호의 이동을 추적한 결과, 비도시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미국 대도시의 주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캐나다의 순이동 또한 도시 중심으로부터 유출되는 현상이 2019년 이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원격근무가 비도시 지역의 인구성장에 기여한 점이 발견
- ◎ 팬데믹 동안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도시중심의 매력은 감소했으며, 원격근무는 대면 미팅을 덜 중요하게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
- ◎ 도심 탈출과 영향을 생각하면 도시중심에 주거하는 것의 이점이 감소하고 점차 도시심을 벗어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등장하며 주변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의 이점으로는 인터넷의 품질 개선, 녹지공간의 증가, 인구밀도의 감소, 그리고 코로나 19 이전 낮은 주거비용 등이 존재
- ◎ 모든 사이즈의 도시와 비도시 지역은 원격근무로 발생하는 이점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몇몇 국가는 원격근무 정책을 발표했고, 몇몇 주요 중간도시와 소규모 도시는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개발
- ◎ 인터넷 연결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품질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수여건
- ◎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과 완전한 변화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런 변화가 서비스의 질 변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논의
- ◎ (도시작업반 반장) 이 주제는 도시의 개발과 관련이 크며 향후 도시간 위계 재편과 도시와 비도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 (스페인) 스페인은 수도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원격근무로 인해 기회 범위가 넓어졌고, 이로 인해 주변 도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됨

라. 지역과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강화 방안

- ⊙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이 주거 개발, 토지 이용계획, 교통, 유출수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는 중
- ⊙ 해당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과 재무적 선택을 통해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OECD-EC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기후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소개
- ⊙ 2019년 승인된 OECD-EC 프로젝트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결합한 관점으로 기후 비용과 기후 이익(거시)을 통합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그린 예산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
- ⊙ OECD는 subnational government climate finance hub를 구축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
- ⊙ (프랑스) 새로운 형태의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 정책과 관련된 계약을 지역 단위에도 적용하여 환경가치를 고려해서 경제 개발과 사회적 개발을 고려한 환경 전환을 고려. 이런 협정은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저탄소 전략,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의미가 있음, 다양한 이동수단의 고안, 에너지 효율이 충분한 빌딩 등을 반영. 이런 모든 것들은 지역 단위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달이 지역 단위에서 적용하길 원한다면 이 협약을 변경해서 지역 단위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

라. 도시와 비도시작업반 논의 공유

- ⊙ 5/9일에 진행된 도시 정책 및 비도시 정책에 관한 합동 워크숍의 내용을 공유하고 비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원칙을 논의
- ⊙ PWB에 포함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들의 초점은 장소기반 접근과 바텀업 프로세스, 다층적 정부와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음

붙임 2. 항공권

<p>LEE CHEONJAE 2022년 05월 13일 (금) KE902</p>  <p>Sec NO 077 EXPIRED</p> <p>CDG 파리/샤를 드 골</p> <p>→</p> <p>ICN 서울/인천</p> <table border="0"> <tr> <td>탑승시간</td> <td>출발시간</td> <td>탑승구</td> </tr> <tr> <td>20:40</td> <td>21:20</td> <td>K35</td> </tr> <tr> <td>좌석번호</td> <td>클래스</td> <td>터미널</td> </tr> <tr> <td>32E</td> <td>일반석</td> <td>2E</td> </tr> </table> <p>탑승 순서 ZONE 5</p>	탑승시간	출발시간	탑승구	20:40	21:20	K35	좌석번호	클래스	터미널	32E	일반석	2E	<p>LEE CHEONJAE 2022년 05월 07일 (토) KE901</p>  <p>Sec NO 018 EXPIRED</p> <p>ICN 서울/인천</p> <p>→</p> <p>CDG 파리/샤를 드 골</p> <table border="0"> <tr> <td>탑승시간</td> <td>출발시간</td> <td>탑승구</td> </tr> <tr> <td>10:45</td> <td>11:25</td> <td>258</td> </tr> <tr> <td>좌석번호</td> <td>클래스</td> <td>터미널</td> </tr> <tr> <td>33F</td> <td>일반석</td> <td>2</td> </tr> </table> <p>탑승 순서 ZONE 1</p>	탑승시간	출발시간	탑승구	10:45	11:25	258	좌석번호	클래스	터미널	33F	일반석	2
탑승시간	출발시간	탑승구																							
20:40	21:20	K35																							
좌석번호	클래스	터미널																							
32E	일반석	2E																							
탑승시간	출발시간	탑승구																							
10:45	11:25	258																							
좌석번호	클래스	터미널																							
33F	일반석	2																							
<p>SIM JISOO Fri, 13 May, 2022 KE902</p>  <p>Sec NO 001 EXPIRED</p> <p>CDG Paris/Charles de Gaulle</p> <p>→</p> <p>ICN Seoul/Incheon</p> <table border="0"> <tr> <td>Boarding time</td> <td>Departure time</td> <td>Gate</td> </tr> <tr> <td>20:40</td> <td>21:20</td> <td>K35</td> </tr> <tr> <td>Seat</td> <td>Class</td> <td>Terminal</td> </tr> <tr> <td>28E</td> <td>Economy</td> <td>2E</td> </tr> </table> <p>ZONE 5</p>	Boarding time	Departure time	Gate	20:40	21:20	K35	Seat	Class	Terminal	28E	Economy	2E	<p>SIM JISOO Sat, 07 May, 2022 KE901</p>  <p>Sec NO 010 EXPIRED</p> <p>ICN Seoul/Incheon</p> <p>→</p> <p>CDG Paris/Charles de Gaulle</p> <table border="0"> <tr> <td>Boarding time</td> <td>Departure time</td> <td>Gate</td> </tr> <tr> <td>10:45</td> <td>11:25</td> <td>Pending</td> </tr> <tr> <td>Seat</td> <td>Class</td> <td>Terminal</td> </tr> <tr> <td>28E</td> <td>Economy</td> <td>2</td> </tr> </table> <p>ZONE 1</p>	Boarding time	Departure time	Gate	10:45	11:25	Pending	Seat	Class	Terminal	28E	Economy	2
Boarding time	Departure time	Gate																							
20:40	21:20	K35																							
Seat	Class	Terminal																							
28E	Economy	2E																							
Boarding time	Departure time	Gate																							
10:45	11:25	Pending																							
Seat	Class	Terminal																							
28E	Economy	2																							